

뒷간과 화장실 미학

동남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가 전 국토에 산재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분뇨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글. 이상정
/무림교역대표·한화협이사/

동남아, 태평양 연안국

화장실 문화의 발달은 그 나라의 문화, 경제 수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만,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동남아 내륙 지방에서는 강을 이용해 분뇨를 처리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는 바다를 이용해 처리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 태국

태국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강을 마치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으며 집도 강가나 강 위에 지어 생활한다. 방콕의 시내에 있는 수상시장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듯이 집들의 출입구는 강을 향해 있으며 용변을 보고 싶으면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서 몸의 하반신을 강물 속에 잠기게 하고 용변을 본다. 또한 강이나 운하의 수면위로 나무를 걸쳐 그 위에 판자를 몇 장 깔고 원두막처럼 만든 간이 변소도 많이 이용되는 화장실의 형태이다. 때로는 강 위에 몇 개의 둥근 통나무만 걸쳐 놓은 변소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자면 적지 않은 평형감각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 속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위에 떨어진 분뇨는 강에 사는 고기의 좋은 밥이 된다. 태국의 하상변소 시스템은 공중변소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베트남

베트남 하노이에는 몇몇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몇개 동의 주택마다 한개씩의 공동변소가 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비교적 큰 변소도 있지만 한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나무로 만든 문이 부서지거나 아예 없는 것이 있을 정도로 초라하고 조악하다.

입구까지의 길 바닥과 변소 내부는 물인지 오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으로 젖어 있기 일췌이고 변기마다

대변이 가득 차서 넘칠 것만 같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공중 변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문지나 바나나 잎을 깔고 일을 본 후 아무 곳이나 그것을 버린다. 이렇게 써서 버리는 행위를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Wrap and throw”라고 설명한다. 도로가에는 곳곳에 써서 버린 인분이 흩어져 있는 탓에 자칫 잘못하면 인분을 밟게 된다.

베트남에서도 인분을 고기 양식에 이용하는데 양어장의 물 위에 나무판자를 걸쳐 간이 변소를 만들어 놓는다.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는 메기의 일종인데 인분을 직접 먹지는 않는다. 연못 속에서 인분에 의해 번식하는 플랑크톤을 작은 고기들이 먹고 메기는 그 작은 고기들을 잡아 먹는다. 서양과는 달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처럼 인분을 버리지 않고 농사, 양식, 목축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991년 베트남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국내의 4개 마을 1,441 가정의 변소 유무를 조사한 결과 64%만 변소가 있고 나머지 36%의 집에는 변소가 없었다. 왜 변소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 3%, 장소가 없기 때문이 27%, 필요가 없기 때문이 18%, 돈이 들기 때문이 30%, 기타가 23%였다.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건설비가 들기 때문이란 이유는 이해할 만하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이란 대답이 있는 것은 다소 의외이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야외에서도 일을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서 용변을 보는가 라는 물음에는 밭에서가 12%, 집의 변소에서가 61%, 근처의 변소에서가 26%, 밖에서 보면 개가 먹는다가 7%, 기타가 7%등으로 대답했다.

▶ 인도

원시 사람들의 갠지스 각가에서 얼굴을 씻고 목욕도 하며 이빨을 닦는다. 강물에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그 물을 마시기도 하며 식기를 닦고 심지어 강가에서 태운 시체의 재를 뿌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 강을 인도의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숭배한다. 인류문명의 주요 발상지중 하나인 이 강에서 목욕하고 참선하는 수행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강물에 용변을 보는 사람과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공존한다는데에 이르면 그저 입이 딱 벌어질 뿐이다.

인도의 곳곳에서는 남자는 나신으로 여자는 사론으로 가슴을 가린 채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강가에는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있으며 차도 달리고 있다. 수영 중에 강물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강의 상류에는 수상변소가 있고 하류에서는 수영을 즐긴다.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 강은 변소임과 동시에 욕장이며 귀중한 수원이기도 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랜 화장실이 기원전 3,000년경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굴되었음을 상기할 때 오늘날 인도의 화장실 문화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오래전부터 인도인들은 분노를 강에 흘려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들은 분노를 저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불경의 열반경을 보면 사원에 대소의 청칙이 있었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청이란 '물로 씻어보내는 변소'라는 뜻으로 '유척' 즉 수세식 변소를 의미한다. 이 변소는 큰 가옥처럼 지어져 삼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내부에 설치된 다리 밑에는 통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분노가 땅 속의 큰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위생적인 시설이었던 셈이다. 물에 씻겨 구멍이에 모아진 분노는 근처의 큰 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으니 불교 사원에서도 이 지방 원주민의 풍습인 유척을 채용했던 것이다.

▶ 불교 사원의 변소

기원전 7세기경 마가다 국에서 탄생한 석가는 고행중에 깨달음을 얻고 불교를 선포하였다. 이후 불교가 번창하게 되자 신도들이 몰려들었고 사원마다 변소는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심지어 비구들까지 가세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방 앞뜰에서 아무렇게나 방뇨를 하고는 했다. 참다 못한 석가는 비구들에게 사원 안의 아무 곳에서도 방뇨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한 곳에 울타리를 치고 항아리를 묻은 후 그곳

에서만 용변을 보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원시 인도의 풍습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유척이 채용되었던 것이다. 불교의 수욕, 수세사상은 원시 인도 원주민들의 풍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불전에서 수도와 용변에 관한 언급이 있다. 이 사상은 그 후에 일어난 회교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모두 고대 인도 원주민들의 풍습을 전승한 것이었다.

▶ 회교도의 관습

회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며, 그때마다 소정, 대정이라고 불리는 부분욕, 전신욕의 절차를 거친다. 용변후 뒷치리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둔 수통의 물을 이용한다. 이때 처리하는 것은 구멍이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항문과 손가락이다. 흐르는 물이 만사를 청결하게 해 준다는 회교도의 청정감은 변기 바닥에 물을 흐르게 하는 변소를 채택하게 하였다. 따라서 배설된 분노는 수세식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회교도들의 변소 양식은 이란, 터키, 이집트, 프랑스 등지에서 널리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교도들의 수세 변기 양식이 세계에 넓게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로마와 크레타 섬의 수세 양식도 페르시아 통일에 의한 회교의 포교와 더불어 전파된 원시 인도 양식의 영향인 것이다.

▶ 왼손의 세정

인도인들은 대변을 본 후 반드시 물을 이용해 뒤를 씻는다. 배변후뿐만 아니라 회교의 규율에 따라 남자는 방뇨 후에도 물을 이용해 자신을 국부를 씻는다. 그들은 물로 뒤를 씻지 않는 사람들 불결하다고 생각한다. 종이를 이용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 만큼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도의 변소에는 입구에 조그마한 물통이 있다. 용변을 보는 장소 바로 옆에 두는 곳도 있다. 인도인들은 용변후 빈 깡통이나 빈 병으로 물통의 물을 떠서 항문을 씻는다. 야외에서 용변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을 담은 깡통이나 병을 휴대하고 있다가 오른 손으로 깡통이나 병의 물을 들고 엉덩이의 계곡 가까이 조금씩 물을 흘리며 반드시 왼손의 손가락으로 씻는다. 결코 오른손을 이용하지 않는다. 인도인들에게 있어 왼손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어린이의 머리를 만져서는 안된다.